

황정수, 농진청 국비 요청

〈무주군수〉

체험형 딸기 재배단지, 농업인 가공·창업 교육장 사업비 등 지원 건의

황정수 무주군수가 지난 20일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을 만나 2018년도 농업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황정수 군수는 △체험형 딸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과 △농업인 가공·창업 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곤충산업과 관련하여도 활성화 의지를 밝히며 사육과 가공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농진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험형 딸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기후를 이용한 여름딸기 생산과 겨울딸기 육묘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는 무주군(현재 21농가에서

4.6ha 규모에 여름·겨울딸기·딸기육묘 생산)이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4억, 군비 4억, 자부담 2억)을 투입해 0.4ha 규모에 벤로형 하우스와 행임베드시설과 난방 및 양약 공급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가공·창업 교육장은 임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가형 제조·가공·창업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330㎡ 규모(총 사업비 6억 : 국비 3억, 군비 3억)에 교육용 강의실과 원부자재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다.

황정수 군수는 "우리 군은 동부산악권 고랭지에 위치해 사과와 전마, 오미자, 머루 등의 농산물 품질이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입아 비율이 83%나 돼 조건불리지역이 많고 경지면적도 작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만큼 지역 여건에 맞게 발굴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무주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해 한국의 알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딸기는 동남아 등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기가 상당한 만큼 딸기 체험단지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프리포즈축제’ 5월13일 개최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완주 프리포즈축제’가 오는 5월 13일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2년차를 맞는 완주 프리포즈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 구이저수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모악산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프리포즈’라는 주제에 집중해 커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연예특강 토크콘서트, 둘이서 한 마음 최강 커플을 찾아라, 러브송 콘서트, 작은 결혼식 체험관, 프리포즈 리운지 등 커플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인 혹은 프리포즈를 하지 못한 기혼 커플들을 위해 ‘사랑의 백일주 담

그기’와 ‘사랑의 자물쇠’ 이벤트를 묶어 50여종 한정 프리포즈 여행상품을 사전예약 판매할 계획이다.

축제 참여 및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전화 063)290-2621~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 프리포즈축제는 여성을 상징하는 ‘모악산’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경각산’의 사랑의 결실로 ‘구이저수지’가 풍요의 상징으로 조성됐으며, 이곳에서 사랑고백을 하면 꼭 이뤄질 수 있다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박성일 군수는 “사랑이 꼭 이뤄진다는 모악산, 경각산, 구이호수에서 소중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완주군 남부권역이 우리나라 프리포즈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완주군은 올해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총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군은 취약계층 1500세대와 복지시설(경로당) 168개소의 낮은 일반조명을 LED 등으로 바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시설교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LPG 가스를 사용하는 210세대에 대해서는 5,100만원을 들여 기존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한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300세대에게는 1,500만원을 들여 가스 타이머 코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343세대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논·밭두렁 소각 전면금지

진안군은 21일 대형산불 방지특별대책기간(3.15~4.20)을 맞아 산불방지 주원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산림인접지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산림청 기동단속과 연계 편성하여 소각산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로컬푸드 행복장터 새 단장

장수군은 오는 5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새 단장을 위해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2억8,000만원이 투입돼 100㎡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2일 공사를 재 착공해 오는 5월 중 운영자를 선정할 뒤 개장과 함께 장수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행복장터에서는 장수군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예정으로 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자 신뢰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포장한 농·특산물을 엄선해 판매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교촌마을, ‘새뜰마을’ 사업지 선정

3년 동안 12억원 지원받아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생활여건 개선 사업 진행

장수군 장수읍 교촌마을의 취약한 생활여건이, 2017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새뜰마을)을 통해 개선된다고 밝혔다.

장수읍 교촌 마을은 2016년부터 공모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올해 새뜰마을 사업지로 선정, 3년 동안 총 12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낙후지역의 안전·위생·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촌마을은 산비탈에 위치하거나,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고 슬레이트 주택과 불량도로 비율이 높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촌지역에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수세식 화장실 설치, 빈집 철거, 마을 쉼터 조성, 진입로 정비, 담장 정비 등이



장수군 장수읍 교촌마을의 취약한 생활여건이, 2017년 농어촌 취약지역개선사업(새뜰마을)을 통해 개선된다.

이뤄진다.

장수군은 지난해 계남면 음신마을에 이어 금년에도 장수읍 교촌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

정이 열악했던 교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인삼·홍삼 제품에 이름표 단다

‘인삼·홍삼 무인방제·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진안군은 21일 ‘진안 인삼·홍삼 U-ICT 무인방제 및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항로 군수, 홍삼연구소 김규일 박사, 품질인증협회 장인

권 회장, 홍삼가공업체, 인삼 재배농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내용, 추진경과, 시스템 개발방향 보고, 질의·응답 등으로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 인삼·홍삼 U-ICT 무인방제 및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총 3억4,270만원(국비 1억3,710만원, 지방비 2억 56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진안군수 품질인증 홍삼제품 구매자는 인삼의 파종에서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과 홍삼이력을 제공함으로써 진안홍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남아 한국관광 설명회 참가

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에서

진안군은 21일 동남아 관광객 유치와 관광 상품 개발·홍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MATTA FAIR(17~19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관광설명회(20~21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마케팅에는 우리나라에서 총 11개 기관이 공동 참가하였으며, 진안군은 전라북도·전라남도도 함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간담회, △MATTA FAIR 박람회 홍보관 운영, △쿠알라룸푸르 현지시장 보고회, △인도네시아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미안산’과 홍삼, 홍삼축제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군의 관광자원에 관심을 보이는 동남아 관광객에게 홍삼비누, 카드형 USB, 홍삼 특산물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년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 개강

무주군은 2017년 반딧불 농업대학이 지난 2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개강식에는 농업기술센터 임영택 소장을 비롯한 농업대학 수강생(109명)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특강,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복한 인생 창조원 조성용 대표가 ‘농업인의 꿈값을 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임영택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우리 농업이 살아나고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무주가 되기를 바

란다”며 “농업대학을 통해 생산과 가공, 유통·판매 노하우를 배우며 정을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2017년 반딧불 농업대학 과정은 11월 9일까지 [사과]와 [모바일마케팅], [6차산업] 3개과로 운영(총 7회)되며 [사과]는 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우병용 강사, [모바일마케팅]은 원광대학교 이병학 강사, [6차산업]은 우리농촌협동조합 김용완 강사가 주 강사로 나서 분야별 강의와 현장견학, 성과발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